



# 수입녹용 불법유통 점조직 적발!

—국내 양록인, 제약회사와 결탁 11억원어치 빼돌려—

원료의약품 용도로 수입된 생녹용을 용도외로 빼돌려 제약회사와 이들에게 물건을 건대민이 국내 시장에 유통시켜온 일당 5명이 서울세관과 본회의 합동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지난 3월17일 수입생녹용을 불법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시킨 5명 중 4명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혐의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제약회사 및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처리하여 서울지검 외사부에 송치, 추가조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지금까지 빼돌린 녹용량은 총 17만7천4백냥, 거래금액으로는 11억원어치로 몇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쳐 국산으로 둔갑,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약회사가 빼돌린 녹용을 국내 시장에 유통시킨 안건택(대륙사슴농장), 이병호(미래사슴농장), 정유환(대성산사슴농장), 황경부(호동사슴농장), 김○○(서울지검으로 이관 조사중)씨는 평소 국내

양록인을 자처하던 사람들로 업계 내 자가 수입녹용을 유통시킨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됐다.

한편 본회는 지난 4월3일 금번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 수사가 진행됐던 과정, 결과,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의 철저한 단속 활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본회 임원 및 농축산, 한의학, 양록관련 전문지 기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수근 회장은 "지금 사슴사육 농가는 값싼 수입녹용의 범람, 사료가격 인상 등 생산원가 상승, 절편녹용 수입허용 추진 등으로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하고 "내농가 피해를 담보로 한 어떠한 불법 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본회 산하 수입녹용감시단의 기능 강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 피력했다. **민국양록**

# 8개월여의 추적조사 끝에 실체 드러난 조직

— 양록인세보, 세관 의지, 본회 합동조사가 만들어낸 결실 —

원료의약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생녹용이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제약회사와 양인들(인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녹용은 건조과정을 거쳐 원산지를 표기한 후 한의약업소에 공급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H제약(서울지검으로 이관 조사중)은 원료의약품 용도로 수입된 녹용을 생녹용 그대로의 상태로 불법 유통, 판매해 왔다. 특히 이들과 결탁해 수입녹용을 유통시킨 인물들이 평소 양록인으로 알려져 왔던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H제약회사와 함께 적발된 사람들은 충남 아산의 안건택(대륙사슴농장), 경남 밀양의 이병호(미래사슴농장), 강원 평창의 정유환(대성산사슴농장), 전북 순창의 황경부(호동사슴농장), 경기 포천의 김○○(서울지검으로 이관 조사중)씨 등 총 5명.

이들은 H제약회사에게 직접 생녹용을 구매하거나, 혹은 H제약회사에게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로부터 다시 생녹용을 공급받아 국내 시장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안건택, 이병호, 정유환, 황경부씨에겐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 등의 혐의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H제약회사와 경기 포천의 김○○씨는 불구속 입건 후 추가 조사를 위해 서울지검 외사부로 사건을 송치시켰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

금번 적발건은 수입생녹용의 불법유통 뿌리격에 해당되는 최초 공급자인 제약회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좀처럼 적발이 어려운 최초 근원지를 찾아내기 위해 소요된 시간은 총 8개월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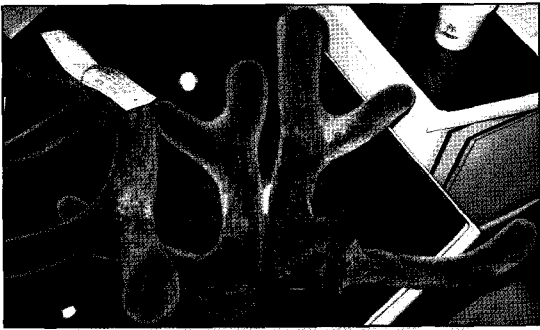
지난해 7월 본회는 서울세관 조규원 조사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원료의약품 용도로 수입된 생녹용과 밀수된 녹용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돼 국내 양록산업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알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본회의 의뢰를 받은 서울세관측은 담당 직원들을 배치, 본회를 통해 ▲ 불법유통되는 수입녹용의 경로 ▲ 불법유통인으로 의심되는 인물 ▲ 녹용 수입 업소 ▲ 수입 물량 및 가격 등 기초 자료들을 수집해 갔다. 또한 본회 사무처 직원이 수시로 서울세관을 방문하며 관련 자료들을 제출, 수사에 협조했다.

이러한 기초자료들을 근거로 서울세관 조사팀이 최초 급습한 곳은 경남 밀양의 미래사슴농장(대표 이병호).

지난 8월23일 본회 사무처 직원과 서울세관 조사팀은 수입생녹용 불법유통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병호씨를 조사키로 하고 농장을 급습했다. 그러나 농장에는 관리인과 부인만 있을 뿐 이병호씨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세관 조사팀이 창고 및 냉장고 개방을 요구하자 관

리인과 부인은 열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세관 조사팀이 이병호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이미 연락은 끊긴 상태였다. 조사팀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창고 및 냉장고 등을 수색키로 했다. 그러나 수색영장이 발부돼 경남 밀양까지 도착하는데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수색영장이 발부되는 시간동안 증거물이 은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세관 조사팀과 본회 사무처 직원들은 농장 인근에서 밤샘 잠복을 실시한 후 영장이 발부된 이튿날 농장에서 외산녹용으로 의심되는 녹용 및 관련 장부들을 압수해 올라왔다.



다음으로 급습한 곳은 서울의 한 지하매장. 이곳을 급습한데에는 양록인의 제보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 9월12일, 서울 당산동 소재 모웨딩홀에서 녹용판매 행사가 열린다는 제보를 받은 본회는 제보자와의 통화를 통해 수입녹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 서울세관 및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와 함께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 판매 중 압수된 녹용은 절편된 생녹용 40곽과 전지 생녹용 두 개. 추가 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조사팀은 판매 현장 인근을 수색했고 그 결과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는 냉동차를 발견했

다. 녹용 운반차량으로 직감한 조사팀은 차량의 개방을 요구했으나 현장판매원들은 본인의 차량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온갖 실랑이가 오간 후에 세관 조사팀은 차량을 강제 개방했고 예상대로 다량의 생녹용이 쏟아져 나왔다. 이 용들은 감정결과 수입산으로 밝혀졌다.



이튿날 세관조사팀과 본회 사무처 직원은 판매행사를 주관한 경기도 포천의 D농장의 진술에 따라 생녹용을 공급한 충남 아산의 대륙사슴농장(대표 안건택)을 수색했다. 또한 9월16일에는 경기도 포천의 D농장과 D농장의 서울 사무실, 충남 아산의 대륙사슴농장을 다시 한번 급습, 관련 장부와 통장 등을 압수해왔다.

세관은 이들 농장으로부터 압수해 온 장부들을 통해 추적조사를 실시, 녹용 최초 공급자가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H제약회사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조사팀과 본회 사무처 직원은 지난해 9월17일 H제약회사를 급습했다. 그 결과 조사팀이 급습한 H제약회사는 문이 잠긴 채 인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행히 회사 정문에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어 그 번호를 통해 H제약회사 부장인 김인호라는 사람을 만나 회사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다. H제약회사에 들어서자 다량의 녹용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녹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회사 구석구석에 뉴질랜드산 생녹용이라고 표기된 빈박스들이 널려 있어 뉴질랜드산 녹용을 취급하는 회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팀은 H제약회사에서 다량의 장부들을 압수하여 증거 채취했다.

관 조사팀은 H제약회사에서 압수한 장부들을 통해 이 회사가 원료의약품으로 수입된 생녹용을 불법적으로 유통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 양록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이후 H제약회사 관계자 및 H제약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양록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실시됐다.

4~5개월의 소환 조사 끝에 세관이 밝혀낸 총 수입녹용 불법유통 물량은 6,670kg(17만7천4백냥), 거래금액으로 총 11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 11억원은 H제약회사와 중간유통인, 중간유통인과 또 다른 유통인 사이에 거래된 금액으로 평균 냥당 6,000원선에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 본회, 식약청장 만나 강력 항의할 예정

이번 적발을 통해 수입녹용의 불법유통 근원이 개략적으로나마 윤곽이 드러난 만큼 큰 수확으로 향후 적발활동에도 다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회의 불법행위를 요약해 보면 최초 원료의약품 제조업소는 수입된 녹용을 불법으로 빼돌려 몇몇 중간 유통업자(양록인)에게 판매 ▶ 녹용을 건넨 양록인들은 중간 유통업자들은 또 다른 유통업자, 양록농가 혹은 지하매장(일명 '뺏다방') 판매책에게 수입생녹용을 판매 ▶ 이것을 구입한 유통업자들은 양록농가,

소비자 혹은 최종 지하매장 판매책에게 녹용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녹용은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에서 유통인에게, 유통인이 또다른 유통인에게,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저가의 수입녹용은 차츰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최종 소비자 손에 당도했을 땐 국내산 녹용 소비자 가격 혹은 그 이상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H제약회사 및 유통인 5명 외에도 중간 유통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또다른 양록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혐의사실이 일어나는대로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수입생녹용의 불법 유통 과정이 만천하에 들어남에 따라 이를 취급하는 업자들에게겐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수입녹용 불법유통인들을 발본색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김회장은 "이번 적발건은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며 "수입녹용 불법유통이 더 이상 만연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김회장은 서울지검 외사부에 수사확대와 적발자들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양록인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입녹용의 주무부서인 식약청을 방문,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수입녹용 사후 관리 소홀을 엄중 항의하고 대책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 불법유통 수입녹용 관련, 기자회견 실시

## — 불법녹용 근절위에 여론 이끌어낼 것 당부 —

본회는 지난 4월 3일 불법진에 관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성명서를 발표, 수입녹용 불법유통 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본회는 이 자리 참석한 농축산, 한의학, 업계 전문지 기자들에게 적발까지의 과정, 결과, 향후 대책안에 대해 발표하고 양록업계를 쫓먹는 불법유통 수입생녹용의 근절을 위해 여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회 김수근 회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全文)과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간 질의사항 및 답변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 일시 : 2003년 4월 3일(목) 오후 3시
- 장소 :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 회의실
- 회견참석자 : 김수근 회장, 배소식, 엄흥기 부회장, 정원영, 이근우, 한은섭 이사
- 언론사 : 농축유통신문(정대영기자), 농어민신문(김미영기자), 축산경제신문(한정희기자), 농축환경신문(정성화전무), 한국농정신문(강완규전무), 농수축산신문(양정권기자), 민족의학신문(이재민기자), 한국의학신문(주재승기자), 보건신문(손상대국장), 후생신문(이상철부장), 한의신문(전성호차장), 월간양록(이성필부장), 사슴신문(전재승국장)
- 순서 : 임원소개  
김수근 회장 인사 및 회견문 발표  
성명서 낭독(성락 사무총장)  
질의 및 답변

■ 기자회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 회장 김수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신 농축산관련 전문지 및 의약·한의 관련 전문지, 양록전문지 기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수년간 국산녹용 판매를 크게 위축시킴은 물론 녹용유통질서를 파괴해온 수입녹용 불법유통이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되었음을 알려 드리고, 또 이에 대한 본회의 대책을 발표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본회는 원료의약품 용도로 수입된 생녹용의 용도와 불법유통이 급증하고, 특히 국산으로 둔갑되어 녹용 유통질서 및 가격혼란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서울세관 조규원 조사국장 면담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본회는 국내 수입녹용 불법유통 심자 현황 및 정보를 세관에 제출하여 서울세관 제2조사관실 조사팀이 9월 경남 밀양의 미래시습농장 및 미래영농조합법인을 불시 조사하여 일부 심녹용을 압수한 후 대표 이병호를 불법녹용 취급혐의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어 9월 12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모 웨딩홀을 일시 임대해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던 D농원(대표 김○○, 경기도

포천)을 본회와 서울세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조사해 현장에서 상당량의 불법유통 의심 녹용을 압수하였고, 농장 관계자의 진술에 의해 녹용 공급자(안건택, 충남 천안 대륙 사슴농장)의 농장 및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서울세관은 최초 녹용공급자인 H 사(남○○, 경기도 연천)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의약품 용도로 수입된 생녹용을 불법 반출한 안건택 외 4명 등 녹용도매업자들에게 약 6,670kg(약 11억원어치)을 유통시켰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2003년 3월 17일, 이들중 4명을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혐의로 과태료 부과처분하고,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 서울지검 외사부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회는 이번 서울세관의 수입생녹용 용도의 불법유통자 적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수입생녹용이 몇몇 제약회사와 다수 녹용유통인들에 의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물을 확보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회는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 외사부에 양록인 다수가 서명한 탄압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이들과 거래한 유통인들에 대한 수사확대 및 처벌, 그리고 수입의약품 사후관리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무유기 및 제약회사와의 유착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하여는 수입

의약품 사후관리 인력 보강과 허술한 제도 정비, 행정처분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면담을 공식 요구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수입 및 유통업자들 비롯, 향후 수사에 의해 드러날 관련자들에 대해 양록업계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사육농가에 피해를 주고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또 다른 조직과 경로를 통해 아직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관련자들 스스로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엄중히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슴사육 농가는 값싼 수입녹용의 범람, 사료가격 인상 등 생산원가 상승, 절편녹용 수입허용 추진 등으로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농가 피해를 담보로 한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도 산하기구인 수입녹용 감시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기자회견 질의 답변 요약

△ 정대영기자 : 과거에도 수입생녹용 불법유통 적발 사례가 있는가?

- 이번과 같은 구체적 적발 사례는 없었습니다.

△ 주재승기자 : 수입생녹용의 불법유통 경로를 설명해 달라.

- 최초 제약회사로 수입된 생녹용은 건조과정을 거친 후 원료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제약회사에서 용도를 무시한 채 생녹용 상태로 중간

유통업자에게 이를 빼돌린다. 중간유통업자는 소규모 유통업자에게, 소규모 유통업자는 양록농가나 지하매장을 통해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국산으로의 둔갑도 이루어진다.

△ 이재민기자 : 국산녹용의 시세는 어떠한가, 또 국산녹용 시세와 불법유통 수입 녹용의 가격차는 어떠한가?

- 국산녹용의 소비자 가격은 낭당 25,000원 수준이다. 도매 가격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불법유통 수입생녹용은 제약회사에서 중간유통업자에게 국내산 녹용 도매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몇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에게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 녹용 도매가격은 기자회견시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나 회보에는 개략적인 내용만 소개함)

△ 주재승기자 : 정식 수입되는 생녹용 중 어느 정도나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하는가?

- 전체 수입량의 80% 정도가 불법 유통될 것으로 추정한다. 1999년 총 생녹용 수입량은 2만여kg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배가 증가한 9만여kg이 수입됐다. 갑작스런 증가량이 전량 불법 유통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성필기자 : 성명서 내용 중 '상습적으로 수입 녹용을 유통시킨 공범자'라는 내용이 있다. '상습적'이란 기준은 무엇인가?

- 불법유통 수입녹용을 거래했던 장부 및 통장에 자주 거론됐던 인물이다.

△ 전재승기자 : '상습적'으로 유통시킨 인물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 10명 이상이다.

△ 손상대기자 : 생녹용 수입업체는 몇 군

데나 되는가?

- 지난해 5군데였다.

△ 손상대기자 : 생녹용 수입업체 명단을 달라. 이들의 불법행위를 밝혀낼 수 있는데에는 기자들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다.

- 기자회견 후 명단을 주겠다.

△ 이성필기자 : 이번에 적발된 6,670kg의 녹용은 전량 레드디어 녹용인가?

- 6,670kg의 녹용을 압수한 것은 아니거라 장부 및 통장들을 조사해 확인된 물량이다. 지난해 판매현장을 적발한 사례가 있는데 그곳에서 판매하던 녹용은 전량, 뉴질랜드 및 호주산 레드디어 녹용이었다.

△ 전재승기자 : 불법유통으로 거래된 11억원이란 금액은 도매가격을 말하는가?

- 제약회사와 중간업자 사이에 거래된 금액이다.

△ 이성필기자 : 최근 뉴질랜드 북부 지역에서 다량의 엘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생산해내는 엘크 녹용은 국내산과 관능상으로 거의 흡사하다고 한다. 엘크 생녹용이 수입될 경우 이를 적발해 낼 방법은 있는가?

- 거래 장부를 통한 적발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식약청 등 관계기관의 단속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 이성필기자 : 불법생녹용대책위원회 등 양록관련 타 단체와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인 적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와 타 단체와의 합동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계 여부를 검토하겠다. **민간협력**